



【 CJ GLS와 함께하는 2003 Logistics Day 】

CJ GLS(대표 : 박대용)는 『21세기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키워드 물류를 재조명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2일 강남 센트럴시티에서 'CJ GLS와 함께하는 2003 Logistics Day' 를 개최했다.

등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적인 물류 메커니즘은 주체가 기업경영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마인드를 구축하게 되고 환경변화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물류협회와 산업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기업체에게는 경영전략으로서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선진기업의 물류 전략 트렌드를 소개하는 한편, 물류전략 수립에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

윤병석 이사는 성공적인 아웃소싱 사례로 평가받는 나이키(사)를 예로 들며 성공적인 아웃소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추진 영역 설정' → '비용과 위험에 대한 평가' → '최상의 공급자를 선정' → '선정된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의 4 단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중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21세기 경영전략의 새로운 화두', 윤병석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사가 '물류아웃소싱의 로드맵', 조상욱 데카르트 시스템즈 코리아(주)대표가 '리얼타임 로지스틱스', 은주동 CJ경영연구소 수석의 '글로벌 기업의 3PL활용 최신 트렌드' 및 장계원 CJ GLS 본부장이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전문 3PL업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은주동 수석연구원은 3PL로 물류아웃소싱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비용절감과 성공적인 SCM수행을 원하기 때문이므로 3PL이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은 SCM능력이라고 제시했다.

조중성 서울대 교수는 효율적 물류관리와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

한편 '제1회 CJ GLS 물류논문공모전 시상식' 도 함께 실시했으며 인하대 국제통상전공 문재경, 홍진영, 정윤미씨가 산자부 장관상을 수상해 상장과 상패,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삼성중공업, 세계 컨테이너船 역사 새로 쓴다】

-캐나다서 세계최초로 9천6백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수주

-컨테이너선 초대형화를 주도하는 세계적 조선소로서 位相 굳혀

삼성중공업(社長 김장완, www.shi.samsung.co.kr)은 최근 캐나다 시스판社로부터 세계최대크기인 9천6백TEU급 컨테이너선 8척(올선4척포함)을 6억9천만불에 수주함으로써 1년만에 컨테이너선 최대 크기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가 337m에 달하며, 화물을 만적하고도 25노트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초대형 및 초고속 선박이다.

기존컨테이너선의 경우 최대 갑판위 6단, 화물창 9단까지 화물 적재가 가능했으나, 이 선박의 경우 갑판위와 화물창에 각각 레싱브리지와 구조설계보강 등을 통해 갑판위에는 7단, 화물창에는 10단까지 적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선박엔진 또한 최대마력인 9만3천마력짜리 엔진이 장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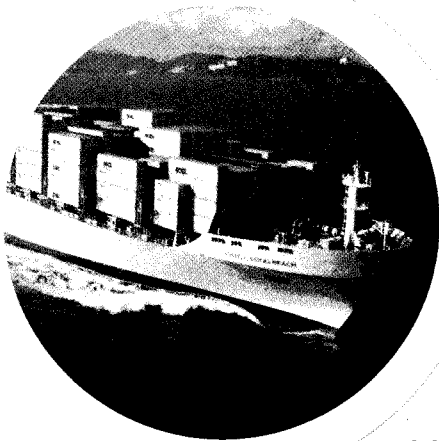
시스판社는 캐나다의 컨테이너선社로 삼성중공업과는 지난 '99년도에 처음 거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0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해 오고 있다. 특히 작년2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크기인 8천1백TEU급 5척을 삼성이 수주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최대크기를 경신했음에 따라 「삼성중공업=세계 컨테이너선 시장의 초대형화를 주도하고 있는 조선회사」로서의 위상 및 기술력을 다시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올들어 전세계적으로 발주된 컨테이너선중 8천TEU급이

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총79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까지 23척을 수주하는 등 약 3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한편 시스판社와 용선계약을

맺은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국영선사인CSG는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 중심으로 급부상하면서 폭증하고 있는 중국내 수출입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키위해 컨테이너선단의 대폭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대량수주 또한 기대되고있다. CSG社는 이번에 발주하는 컨테이너선 모두 중국과 EU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전문가들은 2010년까지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10%이상 꾸준한 성장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곧이어 1만TEU급 컨테이너선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1만TEU급 컨테이너선의 시장선점에 주력하는 한편, 기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에서「꿈의 선박」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1만2천TEU급 컨테이너선 개발 및 수주에도 본격 착수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앞선 기술개발과 시장수요 예측에 힘입어 올들어 초대형, 고부가가치, 특수선박 등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신설비를 활용해 자동화와 공정 효율화 등에 노력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외에도 ▲LNG선의 경우 금년도 발주물량 14척중 9척을 수주해 64%라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대형여객선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주하고 있으며 ▲해양설비에서도 해양플랫폼, FPSO 등 11억불 상당을 수주하는 등 전분야에서 당초계획을 초과하는 수주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연말까지 조선 및 해양플랜트부문에서 창사 이래 최고인 60억 달러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기반으로 고수익 위주의 선별수주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흥아해운 창립 42주년 기념식】

흥아해운은 지난 12월 8일 창립 42주년을 맞아 이윤재 회장을 비롯한 200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동 본사 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회사에 공헌한 장기근속자와 모범사원에게 장기근속상과 모범사원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무팀 박정환 부장, 흥아주피터호 김만영 기관장 등 13명이 장기근속상을, 흥아방콕호 김봉근 장, 해외마케팅팀 한영락 과장 등 11명이 모범사원상을 받았다.

【2003년 한·중 물류포럼 개최】

항공산업정책 연구소가 주최한 2003 한·중 국제 물류포럼이 지난 12월 8일 한국항공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 홍순길 항공대학교 총장, 송정섭 한국복합운송협회 회장 및 물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엄태훈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교 UPS 석좌교수가 '중북 아시아 물류허브개발을 위한 전략'을, 박노언 중국 파이렛컨설팅 로지스틱스 그룹의 부사장이 '중국 물류환경과 물류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각각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 엄교수는 "물류허브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한 거점 유치를 통한 외자유치의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효과적인 물류개선을 통해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부사장은 중국은 최근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물류비용도 GDP 대비 20%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매력적인 3PL시장으로써의 잠재력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거대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SAP 코리아, 아시아나에 솔루션 공급키로】

SAP 코리아(대표 한익녕)는 지난 12월 19일 아시아나항공(주)(대표 박찬범)이 자사의 통합경영시스템 구현을 위해 SAP의 mySAP Business Suite 와 SAP for Aerospace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의 안전과 운용효과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인 AMIGOS II(Asiana Airlines Maintenance & Engineering

Information General Operations System)의 일환으로 ERP를 도입하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정비부문의 업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재설계하여 안전한 항공, 믿을 수 있는 항공사로서로서의 입지우위를 다지기 위한 전략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이며 금호그룹 계열사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나EDT(주)의 최동남 상무는 "항공산업과 같이 효율적 비용관리와 함께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업계에 있어서 검증된 솔루션과 그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델타 항공, 에어 프랑스 같은 전 세계 유수의 항공사가 이미 SAP의 솔루션을 사용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하고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 (Star Alliance)의 상당수 항공사가 기간시스템으로 SAP를 기동하고 있다는 점이 SAP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특히, 다른 업체들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항공산업 특화 솔루션을 보유한 SAP의 솔루션은 일고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컨설팅은 Lufthansa Systems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5년 5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솔루션 구축이 끝나고, 시스템 안정기에 접어드는 2005년 말부터는 신속 정확한 정보 관리와 선진 정비시스템 정착을 통해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이끄는 초일류 항공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SAP 코리아의 한익녕 사장은, "전 세계의 유명 항공사를 통해 이미 검증된 SAP 솔루션의 우수성이 국내 항공사에 최초로 선택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SAP의 항공산업 특화 솔루션은 정비부문과 같이 항공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어, 비용 감소와 생산성 및 정확도 향상 측면에서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사간의 수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작업수행시기를 예측하고, 신속 명료하게 정비작업정보를 제공하여, 지연과 결항을 감소시켜 궁극적인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데이터 관리형태를 계층구조에서 관계형으로 유연하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의 증가 억제라는 부대효과까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화물, 올해도 고공비행】

2004년 세계경제는 지난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밝혔다. 다만, 달러 약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회복 속도는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항공화물의 수요는 고공비행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8%의 성장률을 나타냈던 항공화물의 수요는 내년에도 8.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보다 18.3% 증가한 289,000톤의 전기전자 품목이 항공기를 이용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기계류는 57,000톤으로 지난해 보다 1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섬유류는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물량이 감소해 1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선별로는 중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화물 수요가 36.1% 이상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주, 구주, 동남아, 일본, 대양주 등 전반적으로 10%내외의 신장율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등의 주요 수출국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FedEx가 산타에게 소원전달】

-롯데 백화점과 함께 어린이 크리스마스 소원 핀란드 산타 마을로 직접 전달

세계 최대의 항공 특송회사 FedEx (www.fedex.com, 한국대표 이사 데이빗 카든)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공동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핀란드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FedEx가 크리스마스 소원을 담은 카드를 핀란드 산타마을로 직접 배송하는 행사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산타 빌리지(Santa Village)'에서 열렸다. 어린이들은 카드에 각자의



소원을 적어 산타 빌리지에 마련되어 있는 FedEx 우체통에 넣으면, 행사를 마감하는 22일 FedEx가 어린이들의 소원카드를 모아 핀란드 산타마을로 특별 배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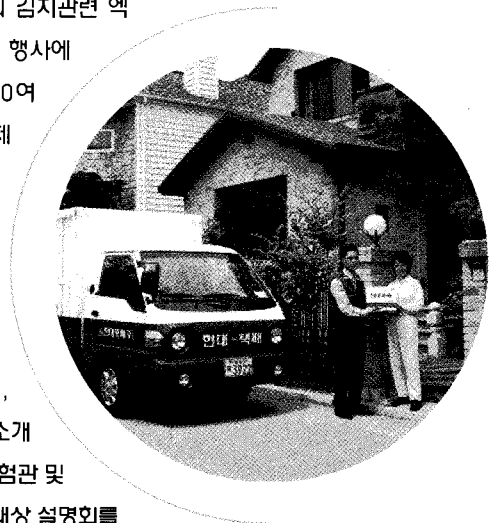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 롯데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가족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FedEx는 소원카드를 작성한 어린이들에게 금인형과 풍선 등 선물도 증정했으며, FedEx의 새로운 캐릭터 'Mr. FedEx'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했다.

【현대택배, 2003 김치엑스포 공식 택배사로 지정】

현대택배(http://www.hyundaiexpress.com, 대표:강명구)가 한 국김치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김치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1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농업무역센터에서 개최된 2003 김치엑스포 공식 택배사로 참여했다.

세계유일의 김치관련 엑스포인 이번 행사에

는 국내 500여 김치관련 업체가 참여하여 국내소비자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김치의 역사와 종류, 제조과정을 소개하고 전통 체험관 및 해외바이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김치의 우수성과 효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다.

현대택배는 이번 행사 기간동안 판매되는 제품의 국내외 배송 뿐 아니라 추후 예약 발송분까지 배송 책임을 맡았다.

【인천시 주최, 물류 연찬회 개최】

- ▶ 인천을 동북아의 물류중심 도시로 실현
- ▶ 삼영물류 이상근 대표, 물류개선사례 발표

지난 12월 22일 파라다이스 호텔(구 올림포스호텔)에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인천시 물류연찬회'가 개최되었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역 물류업계 중사자와 서울지역 주요 선사·항공사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 송년모임을 겸한 것으로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인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날 행사에서 인천시는 인천물류업 발전에 힘쓴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 하역협회, 경인항운노동조합, 한국선주협회 인천지회, 인천복합운송협회의 등 5개단체에 감사패를 전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또한, 인천공항 업무보고와 인천시 영상홍보를 상영에 이어 물류업계를 대표로 삼영물류 이상근 대표이사가 '물류공동회를 통한 물류개선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물류연찬회는 정부와 물류업체가 혼연일체된 마음으로 인천지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인물 동정】



>> 강 동 석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

*약력: 강동석(65세), 전주고졸업, 경희대 법률학과 1년 중퇴, 교통부 관공, 도시교통 육운국장, 해운항만청장,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장, 현재한국전력공사 사장



>> 이 회 범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

*약력: 안동 생(54세), 서울대 사대부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자원정책실장, 산업자원부 차관, 한국생산성본 부회장, 서울산업대 총장(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현)



>> (사)한국물류협회 인사이동

<부장승진>

사업팀 이민수 (2004년 1월 1일자)

>> 김현 한국복합운송협회의 고문변호사

세계 CEO 네트워크 권위자인 '2004-2005 International WHO'S WHO of Professionals'(전문직업인 세계인명록)에 등재되었다.

>> 웨비리넷 인사이동

【임원】

- △마케팅본부장 최만섭
- △경영지원실장 장일룡

【승진】

- | | |
|--------------|--------------|
| △수도권사업부장 박충균 | △중부사업부장 이병두 |
| △영남사업부장 김 창 | △채권팀장 조성철 |
| △법인팀장 김도희 | △기획팀장 송병준 |
| △영업팀장 김명호 | △CS팀장 김동우 |
| △I S 팀 장 김시영 | △네트워크 팀장 정병성 |
| △북부지점장 김영각 | △서부지점장 박상신 |